

**7-12-2009 주간 메세지**

성시: 시편 40:1-17

본문: 출애굽기 20:22-26

제목: **하나님이 복주시는 제단**

모세는 네 번째로 다시 산에 오른다. 거기에서 세 장에 걸쳐 계시를 받는다. 이 세 장에 걸쳐 개인과 나라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행하여야 할 규례들이 주어진 후에 성막에 대한 지침이 주어진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본 것을 상기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직접 보았고 들었던 것 같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마 17:1-5).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은 신상들과 금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 (23 절). 다시 말해서 우상들을 만들어 그것들이 하나님이라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몰튼과 이방의 새겨진 신들로 인하여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다 (민 25:2-6). 재판관기(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은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다 (판 2:3,7,12,19).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가?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제 2 계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과거 2000 년의 역사 속에서 예술과 과학 그리고 교육과 종교와 철학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막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물질주의를 부채질하게 되어 우상숭배로 인도하게 된 것들이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탐심이 우상 숭배**” 이며 (골 3:5), 사무엘에 의하면 “**완고함은 우상 숭배**” 와 같다(삼상 15:23). 탐심과 완고함으로 인해 인류는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옛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축복을 받기 전에 할 일은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탐심과 완고함을 버리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을 빙자하여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가? “**이익이 경건이라.**” (딤후 5)는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탐심의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 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 3:17)  
그러나 성경은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딤후 6:6)고 말씀하신다.

제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24-26 절). 제단은 자연석으로만 만들라고 명령하셨다. 다니엘서 2 장에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 이 신상을 쳐서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게 될 것이다 (단 2:45). 니므롯이 시달 땅에 바벨탑을 쌓을 때에도 그들은 자연석(STONE) 대신에 벽돌(BRICK)을 사용하였다 (창 11:2-6). 사람의 손으로 가공한 벽돌을 사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써 그들을 지면에 흠으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내려와 복을 주리라.**” (24 절)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 나타나신다는 말씀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실로에서 기억하셨다(렘 7:12). 그후에는 베엘에서 (삼상 10:3), 그리고 시온에서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셨으며(시 78:68)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이 기억된 곳은 올리브 산(행 1)이었으며 앞으로 조만간 그곳에 그의 이름이 또 다시 기억되게 될 것이다 (속 14:1-10). 이에 대해 스카라 선지자가 증거했다:

“**그의 발이 그 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 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사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속 14:4)

오늘날 어디에 그분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는가? 바로 창세기 1 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 장 마지막 구절까지가 아닌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장소는 갈보리 언덕이라 불리우는 예루살렘 진영 바깥이었다. 그곳에 대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의 언어들로 기록되어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세 언어로 기록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택하시고 죄인들을 만나시어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히 13:9-13). 이 제단은 이 시대에 있는 유일한 제단인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제단에 대하여 증거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사람은 이곳에서 나온 것을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히 13:10-13)

노아와 아벨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희생제들 드렸던 사람들이었으며 아브라함이 그 뒤를 이었다 (창 8:20, 12:8).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신다. 그분께서 오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시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시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요 4:23-24)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영이 거둔단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약속인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드리는 합당한 예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거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롬 12:1)고 권면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에 임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감사의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다.

제단에 오르는 자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나온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의 옷차림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성령께서는 마지막 때에 짧은 치마와 선정적인 옷차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서조차 발거벗음이 드러날 것을 미리 아시고 하신 말씀인 것이다. 우리의 영과 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주님 오실 때 책망하 것이 없어야 할 것이다(살전 5:23).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다:

“**또 주가 말하노라.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며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그들이 다닐 때에는 종종걸음을 치며 밭에서는 짹짹 소리 내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딱지가 생기게 칠 것이요, 주가 그들의 온밀한 부분들을 드러내리라.**” (사 3:16-17)

**7-12-2009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40:1-17

Main scripture: Exodus 20:22-26

Subject: **The altar blessed by God**

Moses went up to the mountain fourth time: and he received the revelation covering three chapters. After the laws for individuals and the nation toward God and individuals, the instruction of the tabernacle was given unto them. LORD asked Moses to remind the people that they saw the LORD God spoke unto them directly. That was the same word of God as Peter and the other two disciples saw and heard at the mountain (Matt. 17:1-5)

God commanded them not to make **“with me”** gods of silver, neither make unto them gods of gold (v23). Because of Molten and the engraved gods of Heathen, they died in the wilderness before they entered the Promised Land (Num. 25:2-6). The book of Judges testifies of the judgment upon the people of Israel that followed the gods of the Heathen (Judges 2:3,7,12,19). What about the children of God nowadays? The gods of the Heathen is related to the second commandment of “idolatry”. In the human history for two thousand years, arts, science, education, religion, and philosophy have never be against idolatry, but they rather boosted materialism to lead people to idolatry. According to Apostle Paul, **“covetousness, which is idolatry.”**(Col. 3:5) Samuel testified, **“Stubbornness is as iniquity and idolatry.”**(1Sam. 15:23) The human has been on the way to destruction because of covetousness and stubbornness as Israel was judged by God because of idolatry. To receive the blessing of God at the altar, we should be away from idolatry; in other word, to be away from covetousness and stubbornness. Nowadays, how many idols are worshipped by the children of God? The false doctrine saying, **“Gain is godliness”**(1Tim. 6:5) has been seducing Christians so that they may worship the idol of covetousness. It reminds us of the warning given to the church of Laodicea:

**“Because thou sayest, I am rich, and increased with goods, and have need of nothing; and knowest not that thou art wretched, and miserable, and poor, and blind, and naked.”**(Rev. 3:17)  
But scripture confirms, **“But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1Tim 6:6)

The altar should be made by God; in other word, it should be made of natural stone (vss24-26). Book of Daniel prophesize that **“the stone was cut out of the mountain without hands”** shall break in pieces the iron, the brass, the clay, the silver, and the gold (Dan. 2:45) Nimrod built the tower with BRICK instead of natural STONE (Gen. 11:2-6) BRICK is the one that is not natural pure for it is processed by human hands. God scattered all the people to all the surfaces of the earth through confusing the languages.

God promised that **“in all places where I record my name I will come unto thee, and I will bless thee.”**(v24) In other word, God shall come upon the all the altars where his name is remembered. Historically, his name was recorded at Shiloh (Jer. 7:12), and at Bethel afterwards (1Sam. 10:3), and at Zion (Ps. 78:68), and finally at the Mount of Olive (Act 1). Sooner or later his name shall be recorded again at the Mount of Olive (Zech 14:1-10) Prophet Zechariah testified of this:

**“And his feet shall stand in that day upon the mount of Olives, which is before Jerusalem on the east, and the mount of Olives shall cleave in the midst thereof toward the east and toward the west, and there shall be a very great valley; and half of the mountain shall remove toward the north, and half of it toward the south.”**(Zech. 14:4)

Nowadays where his name is recorded and remembered? It is in the book of Genesis from chapter one through Revelation chapter twenty two. The best place of blessing of God is outside of camp of Jerusalem called as the **“Hill of Calvary”**. The scripture recorded as “The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 of that place. This name was recorded in the languages of Shem and Ham and Japheth so that all men may be able to read it. In other word, it was recorded in Hebrew, and Latin and Greek. God has chosen that altar, and wants to bless the sinners (Heb. 13:10-13). This altar is the only altar in this generation.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altar:

**“<sup>10</sup>We have an altar, whereof they have no right to eat which serve the tabernacle. <sup>11</sup>For the bodies of those beasts, whose blood is brought into the sanctuary by the high priest for sin, are burned without the camp. <sup>12</sup>Wherefore Jesus also, that he might sanctify the people with his own blood, suffered without the gate. <sup>13</sup>Let us go forth therefore unto him without the camp, bearing his reproach.”**(Heb. 13:10-13)

Noah and Abel were the first ones that built the altars to offer the sacrifice unto God, and followed by Abraham (Gen. 8:20, 12:8). God still wants to visit the worshippers. Unless he visits, it is ended with a ritual thing in vain. Lord Jesus mention about the worshipper unto the woman in Samaria saying, **“<sup>23</sup>But the hour cometh, and now is, when the true worshippers sha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in truth: for the Father seeketh such to worship him. <sup>24</sup>God is a Spirit: and they that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John 4:23-24) In other word, God is willing to bless the worship of the children of God born of the Spirit in the pure truth of God.

Apostle Paul encouraged us for the reasonable service at the altar of God more clearly for us:

**“I beseech you therefore,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hat ye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unto God,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Rom. 12:1)

In other word, it is the true service that we understand the will of God for his kingdom coming in heaven and earth, and submit our body as a living sacrifice with thanksgiving to do his will.

We hear the last warning for them that come up to the altar of God. We'd better receive this as the appearance of the worshippers. The Holy Spirit foresaw them that wear short skirt and lascivious clothe showing the nakedness even in the churches of God. Not only the spirit and the soul, but the body should be blameless at his coming (1Thes 5:23). God spoke of this prophet Isaiah:

**“<sup>16</sup>Moreover the LORD saith, Because the daughters of Zion are haughty, and walk with stretched forth necks and wanton eyes, walking and mincing as they go, and making a tinkling with their feet: <sup>17</sup>Therefore the LORD will smite with a scab the crown of the head of the daughters of Zion, and the LORD will discover their secret parts.”**(Isa. 3:16-17)